

나크바의 날?

5월 15일은 '나크바의 날'입니다. '나크바'란 '대재앙'이란 뜻으로, 1948년 시온주의 민병대가 팔레스타인인 수만 명을 학살하고, 100만여 명을 고향에서 내쫓은 뒤 그 땅을 강탈한 일을 가리킵니다. 식민 점령 국가 이스라엘의 건국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대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제 2의 나크바를 저지르려는 학살 국가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76년간 굴복하지 않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합니다.

'나크바의 날'
집중 행동

이스라엘은 라파 지상전 즉각 중단하라!
인종 학살 멈춰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5월 18일(토) 오후 2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

1948 2024

“나크바(대재앙)는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청소하고 땅을 강탈한 일로, 5월 15일이 나크바의 날입니다.”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 아랍어-영어-한국어 통역 제공
- 집회 후 도심 행진
- 차기 집회·행진: 5월 25일 오후 2시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홍보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010-7550-2131 @people.freepalestine bit.ly/people-freepalestine people.freepalestine@gmail.com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재한 팔레스타인인·아랍인·국내 시민·사회단체 43곳이 함께합니다.(2024.5.6. 현재)

문의: 010-7550-2131 | people.freepalestine@gmail.com |
bit.ly/people-freepalestine | 인스타그램 @people.freepalestine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



나크바를 기억하는 국제 행동의 날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히 남을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점령의 부당함에 대한 더 많은 인식을 제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날, 팔레스타인인으로서 우리는 뿌리 깊은 회복의 역사를 기억하고, 정의를 요구하며, 같은 날 반대편에서는 축하하고 있는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을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연대하여 소외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현재 진행 중인 가자지구의 대량 학살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되리라.

팔레스타인인 학생 시마

영국은 수 세기에 걸친 식민지 폭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 식민지화를 위한 길을 닦았고, 지금도 계속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온 학생으로서 저는 영국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영국의 진정한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영국 학생들은 스스로를 교육하며, 식민 지배를 종식하고 이스라엘과 서방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팔레스타인을 요구합니다.

유대계 영국인 학생 에이바

나크바의 날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시온주의 국가가 시작됨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었던 강제 이주와 억압을 항상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고한 팔레스타인인 수천 명이 이 명백한 인종 청

소 행위로 인해 쫓겨나고 살해당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동일한 수준의 폭력, 공격,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팔레스타인에 연대해야 합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 제이다

가자지구에서 4개월 동안 사망한 어린이 수가 전 세계 분쟁의 4년 동안 사망한 어린이 수보다 많습니다. 저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자지구의 아이들입니다!

튀니지계 프랑스인 학생 리렘

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76년이 넘도록 고통 받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부정적인 점령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해 나크바 76년 국제 행동의 날에 참가합니다. 우리는 1948년에 잔인한 학살을 피해 떠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미국이 명시한 대로 지금까지도 귀환할 권리를 보장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역사를 새롭게 다시 쓰고 우리의 인류애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Free Palestine!

이집트인 학생 아부

독일은 이미 여러 대량 학살을 저질렀지만 그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저는 스스로를 독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당시 유대

인에 대한 비극적인 대량 학살 이후 독일은 "다시는 이런 잔인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량 학살에 가담했고, 독일은 이스라엘에 두 번째로 중요한 무기 공급국입니다. 독일인으로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은 "모두에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대량학살을 지원하지 말라!

독일인/레바논인 학생 후세인

연세대 학생들은 연세대가 인종학살범들의 피문은 손을 잡는 것을 규탄합니다. 연세대는 지난 2019년,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은 불법 정착촌을 확대하고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거나 살해한 장본인입니다. 한술 더 떠 연세대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한 무기와 전술을 개발해온 테크니온 공과대학, 텔아비브 대학 등과 학술교류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인종학살범들을 명예롭게 포장해주는 것은 이한열, 노수석 같은 연세대의 선배들이 싸워서 지켜온 양심과 정의에 먹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인종학살을 저지르고 방조하는 이스라엘과 미국 등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양심과 지성의 공간이어야 할 대학들이 인종학살범과 관계를 단절하라고 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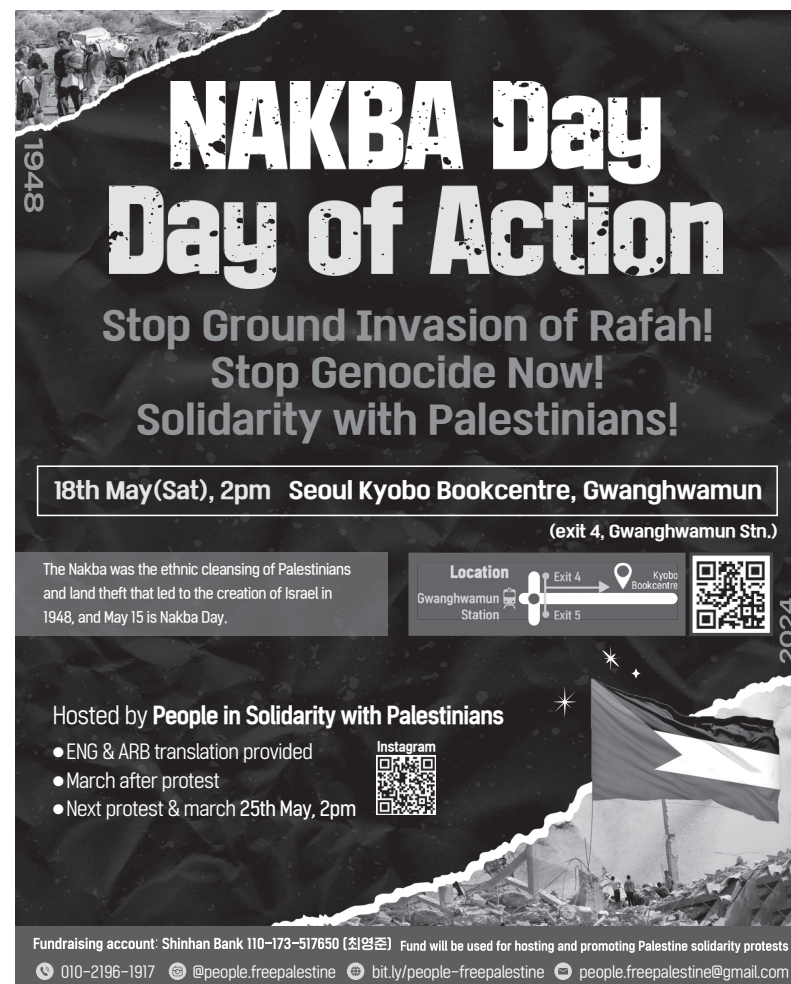
한국인 학생 김태양



Nakba Day?

15 May is Nakba Day, which means ‘catastrophe’ and refers to the 1948 massacre of tens of thousands of Palestinians by Zionist militias, who drove more than a million from their homes and stole their l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lonial occupying state of Israel was a ‘catastrophe’ for Palestinians.

We condemn the genocidal state of Israel for attempting to commit a second Nakba and stand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who have refused to give up for 76 years.



1948

NAKBA Day

Day of Action

Stop Ground Invasion of Rafah!
Stop Genocide Now!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18th May(Sat), 2pm Seoul Kyobo Bookcentre, Gwanghwamun
(exit 4, Gwanghwamun Stn.)

The Nakba was the ethnic cleansing of Palestinians and land theft that led to the creation of Israel in 1948, and May 15 is Nakba Day.

Location
Gwanghwamun Station
Exit 4 Kyobo Bookcentre
Exit 5


Hosted by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 ENG & ARB translation provided
- March after protest
- Next protest & march 25th May, 2pm

Fundraising account: Shinhan Bank 110-173-517650 (최영준) Fund will be used for hosting and promoting Palestine solidarity protests


☎ 010-2196-1917 @people.freepalestine bit.ly/people-freepalestine people.freepalestine@gmail.com

2024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with Palestinians, Middle Easterners and North Africans in Korea, and 43 organizations

Contact : 010-2196-1917 | people.freepalestine@gmail.com
bit.ly/people-freepalestine | instagram @people.freepalestine



Voices of students standing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across the world



Participating in the global day of action for Nakba is my way of honoring my ancestors' forever lasting history and raising more awareness regarding the injustices caused by the Israeli occupation. On this day, we as Palestinians, take the time to remember our deep rooted history of resilience, demand justice and call for an end to apartheid that is being celebrated at the same day on the other side. Together, we can build this solidarity to turn up the volume of the marginalized Palestinian voices, and end the ongoing genocide in Gaza. Free Palestine.

Seema, Palestinian student

Britain has a history of colonial violence spanning centuries, and in fact it was the British government that paved the way for Israeli colonisation, and continues to fund it. As a student from London, I can say with certainty that the British education system has never taught its pupils the true history of the UK. But myself and many other British students have educated themselves, and we call for an end to colonisation and for a free Palestine, liberated from Israeli and western oppression.

Ava, Jewish British student

Participating in Nakba Day allows us to always remember the displacement and oppression Palestinians faced at the

inception of the Zionist state. Thousands of innocent Palestinians were dispossessed and killed in this obvious act of ethnic cleansing. To this day, Palestinians continue to be met with the same level of violence, attacks, and massacres. We must continue to speak out and stand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Jada, African American student

More children have been killed in 4 months in Gaza than in 4 years of conflict worldwide. I want to be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We are all children of Gaza!

Rihem, Tunisian-French student

I participate in the global day of action for Nakba so that I can spread awareness about the ongoing injustice occupation that Palestinians have been suffering from over 76 years. We have to show the world that the Palestinians who fled from brutal massacres back in 1948 have not received their right of return as stated by the US. This is an opportunity to rewrite history and cherish humanity. Free Palestine.

Abu, Egyptian student

As a German who knows about the several genocides Germany already has done and not learned from it, I am ashamed to call myself even a German. After the tragic genocide towards the Jewish people back



then, Germany promised that something cruel like this will “never happen again”. Yet again it participates in a genocide towards Palestine and is the second most important weapons supplier to Israel. As a German I say “Never Again” means “Never Again for everybody”.

Not in my name!

Hussein, German/Lebanese student

Yonsei students condemn the university's bloody hand in the hands of genocide criminals. In 2019, Yale University awarded Israeli President Reuven Rivlin an honorary Doctor of Laws degree. Reuven Rivlin is responsible for the expansion of illegal settlements and the expulsion and murder of countless Palestinians. Furthermore, Yonsei has signed academic exchange agreements with the Technion Institute of Technology and Tel Aviv University, both of which have developed weapons and tactics that have killed Palestinians. Honouring genocidal criminals is a slap in the face to the conscience and justice that Yonsei's seniors like Lee Han-yeol and Noh Su-seok fought for.

We condemn Israel,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who commit and abet genocide and demand that universities, which are supposed to be spaces of conscience and intellect, cut ties with Israel.

Taeyang, Korean student

